



## 반쪽 한일전 되나

일본 국가대표 핵심 하라구치 코로나19 '양성' 손흥민도 부상 당해 엔트리 제외 가능성 남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주축들이 대거 빠진 반쪽짜리로 치러질 위기가...

했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 제외 가능성이 남아있다.

일본과 독일 언론은 16일(한국시간) 독일 분데스리가(2부) 하노버에서 뛰고 있는 일본 국가대표 핵심 자원 하라구치 겐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벤투 감독은 "부상 정도, 검사 결과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 구단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부상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하노버 구단이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독일 언론은 하라구치라고 특정했다. 선수단은 2주의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공격수 황희찬(라이프치히) 역시 소속팀과 주정부 사이에서 선수 목적지 및 여정표를 확인 후,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 중이다. 격리 면제가 안 될 경우, 부르지 않을 방침이다.

하라구치는 A매치 57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린 일본의 주축 자원이자 일본 리그와 레즈에서 뛰다가 2014년부터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한 황희찬(보르도), 소속팀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격리 중인 이재성(울슈타인 킬), 중국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베이징 궈안), 손준호(산둥 루닝)도 모두 합류가 무산됐다.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전에 출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하노버에는 국가대표 수비수 무로야 세이도 속해 있어 전력 손실이 적잖다. 무로야는 A매치 12경기에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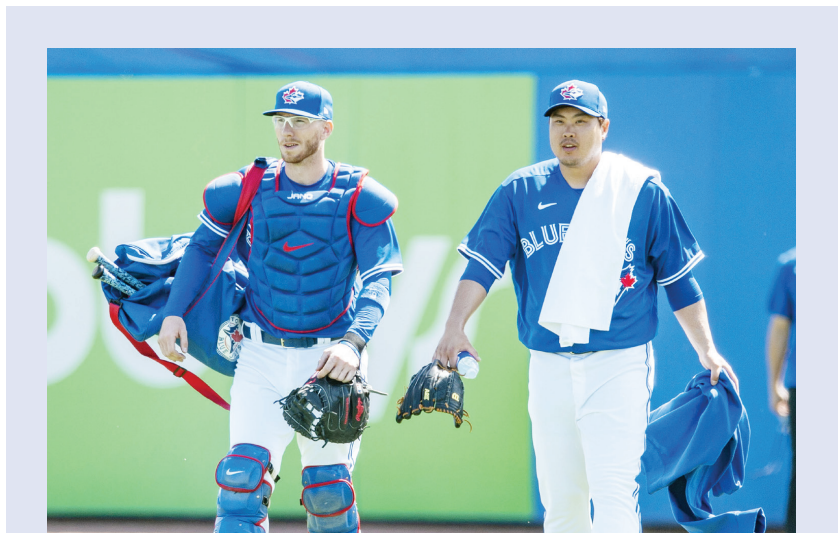
벤투 감독은 "황희찬도 주축 공격수인데 못 오고 이재성도 마찬가지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손흥민과 황희찬까지 잃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토트넘)이 부상을 입는 등 영국 모두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전은 오는 25일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2011년 8월 삿포로 경기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대표팀 1진의 맞대결이다.

손흥민은 15일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경기 시작 19분 만에 햄스트링 통증으로 교체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일전 엔트리를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이름을 포함



류현진(오른쪽)과 포수 대니 캔슨.

## 토론토 감독, 류현진 개막전 선발? "2주나 남아...아직 말할 때 아냐"

찰리 몬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은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등판 여부에 즉답을 피했다.

몇몇 구단들이 이미 개막전 선발을 공표한 것과 달리 몬토요 감독은 신중했다.

몬토요 감독은 16일(한국시간)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인가"라는 질문에 웃음부터 지었다.

몬토요 감독은 "(개막까지) 2주나 남아.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보였다.

토론토는 다음 달 2일 뉴욕 양키스 원정을 통해 새 시즌의 서막을 알린다.

류현진의 두 번째 시범경기 등판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이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삼진 4개를 잡는 동안 사사구는 하나도 없었다.

류현진은 이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삼진 4개를 잡는 동안 사사구는 하나도 없었다.

## "표정 변화가 없다"... '대선배' BK 칭찬받은 KIA 루키 장민기

첫 실전서 배장 넘치는 위력투 '수확' 변화구 제구 '숙제'

"표정 변화가 없다". KIA 타이거즈 신인투수 좌완 장민기(19)가 첫 실전에서 대선배의 칭찬을 받았다.

자책 1실점했다. 아웃카운트 6개를 잡고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장민기는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연습경기 4차전에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동안 6타자를 상대로 2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36구를 던졌다. 직구, 슬라이더, 포크를 구사했다. 최고 구속은 143km를 찍었다. 신인답지 않게 마운드에서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4회 첫 이닝은 투구폼도 매끄럽고 제구도 잘 들었다.

4회 첫 이닝에서는 팀간 특별볼에 따라 아웃카운트 4개를 잡았다. 김민하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고 이성열, 박정현을 외야 뜬공으로 유도했다. 투구수가 적어 네 번째 타자 이도윤까지 상대해 2루 땅볼로 처리했다. 상대의 중심타선을 배장 넘치는 위력투로 잠재웠다.

5회 볼넷 2개를 내주는 과정은 숙제였다. 변화구 제구가 흔들렸다. 수확과 숙제가 동시에 주어졌으나 첫 등판치고는 무난한 투구였다. 동기생 이의리가 위력적인 투구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장민기도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회는 장운호와 김지수에 게 징검다리 볼넷을 허용했다. 1사 후 임중찬을 중견수 뜬공으로 유도했는데 야수의 송구실책이 나와 비

KIA 자체 TV 유튜브 생중계 해설에 나선 타이거즈 선배 김병현은 "투구폼이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다.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이다. 볼 끝에 힘이 좋다. 주눅들지 않고 공격적으로 자신있게 던진다"고 높은 평



점을 매겼다. 이어 "입단 동기 이의리와 스피드 차이는 나지만 괜찮은 것 같다. (포수에게서) 포구 동작도 편안하고 표정 변화가 없다. 당차게 보기 편하게 던졌다. (선배) 류현진도 신인 시절 '과연 신인인가'라고 할 정도로 표정 변화가 없었다. KIA 선수 가운

데 오늘의 MVP로 정하고 싶다"며 감심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마산 용마고 출신 장민기는 SSG에 입단한 추신수에게 "홀런을 맞고 싶다. 가장 좋은 공으로 상대하겠다"며 당당하게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이슬 기자

## 삼성생명, 여자농구 사상 최초 4위팀 챔프전 우승...MVP 김한별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우승...통산 6번째

0%의 확률을 깨며 '여왕'의 자리에 오른 주인공은 용인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은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4위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일궜다.

며 팀의 우승 확정에 앞장섰다.

삼성생명은 1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정규리그 4위팀인 KB국민은행과의 챔피언결정전 5경기에서 74-57로 승리, 3승 2패로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확정했다.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도 김한별의 차지였다. 김한별은 기저단 투표에서 총 85표 가운데 66표를 획득, 나란히 8표를 얻은 김보미와 윤예빈을 제치고 MVP를 품에 안았다.

삼성생명이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6년 여머리 이후 약 15년 만으로, 통산 6번째다.

김한별은 이날 경기를 포함해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8경기에서 평균 37분 37초를 뛰며 평균 18.5득점 8.1리바운드 5.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챔피언결정전 5경기에서는 평균 41분 12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평균 20.8득점 7.8리바운드 5.6어시스트로 필필 날았다.

여자프로농구가 출범한 1998년 이래로 정규리그 4위팀이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삼성생명이 사상 최초다.

주장 배혜윤이 15득점 5리바운드를 올리며 삼성생명의 우승을 쌍끌이했다.

4강 플레이오프에서 정규리그 1위팀 아산 우리은행을 2승 1패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2001년 겨울리그 한빛은행 이후 20년 만에 4위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이룬 삼성생명은 1, 2차전을 잡은 뒤 3, 4차전을 내리 패배했지만, 5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윤예빈이 11득점으로 힘을 보였고, 베테랑 김보미도 12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후원을 발휘했다.

삼성생명의 김한별이 에이스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김한별은 22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활약하

KB국민은행은 승부를 5차전까지 끌고가는데 성공했으나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다. KB국민은행이 우승했다면 5전 3선승제의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에서 남녀 프로농구를 통틀어 사상 최초로 2패 뒤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삼성생명의 김한별이 에이스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김한별은 22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활약하

KB국민은행의 '기동' 박지수가 17득점 16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하며 분전했다.

뉴스



15일 오후 경기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챔프전 5차전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청주 KB국민은행 스타즈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거머쥔 삼성생명 감독과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WKBL 제공)

## 'MVP' 김한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팀원들에게 감사하고파"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한 용인 삼성생명의 에이스 김한

별(35)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오프·챔피언결정전 8경기에서 평균 37분 37초를 뛰며 평균 18.5득점 8.1리바운드 5.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챔피언결정전 5경기에서는 평균 41분 12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평균 20.8득점 7.8리바운드 5.6어시스트로 필필 날았다.

삼성생명은 1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4위팀인 KB국민은행과의 챔피언결정전 5경기에서 74-57로 승리,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정상에 등극했다.

우승을 확정짓는 5차전에서도 22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낸 김한별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힘든 시간을 보낸 팀원들이 자랑스럽고, 코치진에게 감사하다"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프로농구에서 정규리그 4위팀이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것은 사상 최초다. 정규리그 5할 미만인 팀이 챔피언에 오른 것도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WKBL 무대에서는 첫 우승을 맞은 김한별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우승을 해봤던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삼성생명 우승에 앞장선 김한별은 가장 빛나는 별이 됐다. 그는 기저단 투표에서 총 85표 가운데 66표를 획득, 나란히 8표를 얻은 김보미와 윤예빈을 제치고 MVP를 품에 안았다.

김한별은 "이번 시리즈에서 박지수를 지지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지수 막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며 "박지수는 미래가 밝은 선수"라고 평가했다.

김한별은 이날 경기를 포함해 플레이오프·챔피언결정전 8경기에서 평균 37분 37초를 뛰며 평균 18.5득점 8.1리바운드 5.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챔피언결정전 5경기에서는 평균 41분 12초 동안 코트를 누비며 평균 20.8득점 7.8리바운드 5.6어시스트로 필필 날았다.

또 그는 "팀원들과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했다"며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로서 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평정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한별과 동갑내기인 김보미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 '동갑인 김보미가 은퇴하는데 은퇴 계획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김한별은 "나의 은퇴도 멀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뉴스